

### 청렴실천다짐대회

◇정동기강원건설단체연합



회장은 6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센터에서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 설계·시공 및 청렴실천다짐대회’를 개최.



◇정동기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6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컨벤션센터 4층 회의

실에서 2012 건설 설계·시공 및 청렴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한다.

## “동서고속화철도 수도권 위한 철도사업”

### 한승수 전 총리 인터뷰

한승수 전 국무총리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150만 강원도민을 위한 길이 아니고 수도권 2000만을 위한 철도”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오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에 있는 동안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현안이 산적해 있어 제일 안타깝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그는 “(동서고속화 철도) 수요 예측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길을 만

들어 놓으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면서 “이 철도는 통일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 차원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인천 아시안게임이 평창올림픽 수준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계올림픽을 강원도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눈이 있어서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장소만 강원도가 빌려 주는

것이지 이는 분명한 국가적인 행사다”고 강조했다. 서울/남궁창성

**2013학년도 송곡대학교 신입생 모집**

간호과    부사관과    유아교육과    피부미용과  
보건의료정보과    사회복지상담과    레저스포츠과

신입생전원 **문화복지장학금** 지급  
춘천지역 스텝버스 **무료** 운행  
지하철 **강촌역** 하차  
(강촌역→대학) **무료** 셔틀버스 운행  
(서울→대학)간 **30분대** 거리

**송곡대학교**

200-911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인지로 69-67 상담전화 033-260-3623-4

# “UN 안보리 재입성... 국가 브랜드 가치 격상”

지난 2일 오후 약속시간을 10여 분 앞두고 기자가 찾은 한승수(77) 전 국무총리의 서울 광화문 사무실은 분주했다.

한 전 총리는 손님을 만나고 있었고, 비서는 한 전 총리의 출장 준비에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공직 은퇴후 여유있는 생활을 즐길 것이라는 생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잠시후 면담을 끝낸 한 전 총리는 “멀리서 왔다.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면서 기자 일행을 집무실로 안내했다.

20여 명의 사무실은 주인답게 소탈하고 정갈했다. 한쪽 공간에는 한 전 총리가 가끔씩 붓글씨를 즐기는 서예공간이 있었다. 응접 탁자위에는 내주 해외출장 중 발표할 자료로 보이는 영문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총리 재임시절 만큼 바쁘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총리 시절에는 국내 현안을 챙기며,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야 바쁘다면 요즘에는 해외출장으로 국내에 있는 시간보다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4일부터 14일까지 두바이, 요르단, 이스라엘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

한 전 총리는 16일 다시 중국으로 출국해 국제금융포럼(IFF) 국제자문위원장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19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어 28일 다시 아프리카 나이로비로 날아가 유엔 사무총장 ‘물과 위생에 관한 자문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유엔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물, 기후변화, 금융, 경제 등의 분야다. 인류의 미래제인 물과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동북아에서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관련한 국제경제 중심축의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세계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후배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유타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최근 우리나라의 외교적 성과로 옮겨 갔다.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유엔 안보리 재가입, GCF 사무국 유치,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출범 등으로 국격이 업그레이드됐다.

한 전 총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개발원조회의는 우리나라의 변화된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했지만 일과성 국제회의라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GGGI 출범, GCF 유치 그리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재가입은 국격을 높이고,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GGGI 청선후 이사회 초대 의장을 역임한 그는 GGGI와 관련한 비자도 공개했다.

그는 총리시절이던 2009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료회의 의장 자격으로 파리에서 ‘녹색성장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그리고 세계적 담론인 ‘녹색성장’은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선진국으로 GGGI를 설립했다.

한 전 총리는 “녹색성장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애착을 가졌던 정책이고 전략이다. 당시 파리주재 OECD 대사가 한림대 총장과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김중수 현 한국은행 총재”라면서 “당시 김 대사는 ‘녹색성장 선언문’이 가결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실, 강원도 출신인 나와 강원도와 인연을 맺은 김 총재가

“

## 해외포럼 일정 즐비... 재임 시절보다 바빠

## 녹색성장 중심 강원 GCF 유치 못해 후감

〈녹색기후기금〉

## 아시안 게임 = 동계올림픽 지원 ‘어불사설’

## 강원 촌사람 금지... 내 젊음 원동력

”

한 것이다. 녹색성장의 중심인 강원도가 GGGI 설립을 주도했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최** 근 인천 송도로 입지가 확정된 GCF와 관련해서는 아쉬움도 피력했다.

한 전 총리는 “GCF 유치를 놓고 외교 강국인 독일, 스위스 등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예상을 깨고 있었다. 매년 1000억 달러씩 8년동안 8000억 달러를 모금해 후진국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증진을 지원하게 된다”며 “GCF 사무국이 녹색성장의 중심인 우리 강원도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인천 송도로 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 △1996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가입 △2002년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 배출 △2006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탄생 그리고 △2012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 재가입이라는 외교적 쾌거를 이뤘다.

한 전 총리는 유엔 안보리 진출과 관련, “세계 분쟁문제를 다루는 안보리에서 발언권이 강화되고, 남북문제 해결에서 광장히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자연스럽게 외교 현안에서 대선 정국으로 넘어갔다. 하



한 전 총리는 “이 철도는 통일에 대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성, 경제성’ 하는데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아시안 게임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평창올림픽과 인천 아시안게임의 동급 지원은 말이 안 된다.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행사가 아니다. 눈이 있어서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다. 장소만 강원도가 빌려주는 것이지 이는 국가행사로 세계적인 축제다. 정부와 국민들이 이해심을 높이고, 동계올림픽이 원활하고 합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도민들의 많은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만큼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가 3개월 남은 이명박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에게 평가를 요청했다.

그는 “정권의 평가는 역사가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할 것”이라면서 “어느 정권이나 정권 말에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여러 이상한 일이 있어 정권을 정당하게 평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1936년 춘천태생인 한 전 총리는 올해로 77세. 적지않은 나이이지만 아직도 ‘청년’이기에 그 비결을 물었다.

“공직에 있으면서도 틈틈이 새벽 4시에 삼약산을 올랐다. 구름을 뚫고 산에 오르면 해가 뜨곤했다. 겨울에는 허리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고, 북반에도 염천을 등에 지고 삼약산을 자주 오르다 보니 그 것이 기초체력이 되어 아직 건강하다. 운동이기도 했지만 끈기 테스트였다”고 말했다.

**그** 는 그러나 최근 운동종목을 바꿨다.

“의사가 이제는 산행은 무리고, 많이 걸으라고 해서 자주 걷고 있다. 그리고 총리를 그만두고 늦게 골프를 시작했다. 3년 됐는데, 필드에 나가도 카트를 타지 않고 천천히 걷는다. 한번 나가면 12-13km를 걷는데 아주 좋다. 집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해 매일 걷는다”고 소개했다.

한 전 총리는 “어릴때 고향 춘천 서면에서 강을 내씩 건너 하루에 30-50리를 걸어 학교를 갔다. 어릴때는 고생스럽다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건강유지에 큰 약이 됐다”고 말했다.

고향에서 다져진 기초체력이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한 전 총리가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됐다.

그는 현재 유엔 산하 ‘물과 재해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회의’ 의장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 ‘물과 위생에 관한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중국 국제금융포럼(IFF) 국제자문위원장 △테마섹 싱가포르 국무부연역 국제자문역 △미국 맨스필드 재단 이사 △민주국가 정부수반 모임인 마드리드클럽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1시간여 동안의 인터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자에게 “고향의 어른들에게 안부를 잘 전해달라”면서 “강원도 촌사람으로 금지를 잃지 않고 있다. (춘천) 서면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궁창성

지만 그는 말을 아꼈다. 사위가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이고, 박근혜 대선후보와는 인척이다.

한 전 총리는 “대선은 우리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정치권에 있었고, 행정의 총수로서 국가 운영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만, 선거 초반이기는 하지만 정책보다는 정쟁이 많은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앞으로는 정책과 정책의 대결로서 국민들이 이를 통해 판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 전 총리는 고향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대학 교수로서도 고향을 빛낼 수 있지만 고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이 정치권이라고 생각해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1988년 정치권에 입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강원도와 춘천에 신세를 많이 지고 사람을 많이 받았다”면서 “정부에 있는 동안 고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많이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도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어 아쉬움이 크다. 춘천-속초 간 동서 고속철도는 강원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라 수도권 2000만명을 위한 길이고 철도다”고 강조했다.